110-054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3702-2100 팩스 02-3702-2121
한국갤럽 홈페이지 www.gallup.co.kr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2/07/25

한국인이 좋아하는 나라, 싫어하는 나라,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전세계 203 개 나라가 참가하는 평화와 화합의 인류제전 런던 올림픽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조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선수들의 선의의 경쟁이 시작된다. 세계 각 국민들은 자국의 대표선수뿐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낼 것이다.

런던 올림픽 개막에 앞서 한국갤럽은 한국인이 어떤 나라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은지 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조사 개요

1. 모집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 조사지역과 표본크기: 전국 1,500명
3. 조사방법: 개별면접조사
4. 조사기간: 2012년 6월 14~29일(16일간)
5. 표본추출: 2단 층화집락추출법
6. 표본오차: ±2.5%포인트(95% 신뢰수준)
7.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미국' (21.5%), '호주' (19.0%) 순,
  10 년 전보다 미국 5.0%포인트, 호주 6.5%포인트 증가
-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일본' (44.1%), '중국' (19.1%) 순,
  10 년 전보다 일본 10.7%포인트, 중국 14.5%포인트 증가
-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51.1%..... 상위 5 개국 10 년 전과 다름 없어

한국인이 좋아하는 나라: '미국'(21.5%), '호주'(19.0%) 순
10 년 전보다 미국 5.0%포인트, 호주 6.5%포인트 증가

한국갤럽이 지난 6 월 14~29 일 16 일간 진행한 개별면접조사에서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 남녀 1,500 명에게 가장 좋아하는 나라(외국)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미국'(21.5%)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은 '호주'(19.0%), '스위스'(8.0%), '캐나다'(7.4%), 그리고 제 30 회 올림픽 개최국인 '영국'(5.1%) 순이었다.

미국, 호주, 스위스, 캐나다는 10 년 전에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나라로 조사됐으며, 10 년 전에 비해 미국은 5.0%포인트, 호주는 6.5%포인트 호감도가 증가했다. 좋아하는 나라 응답에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연령별로 봤을 때 60 세 이상(259 명) 중 32.8%가 미국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점이 두드러졌다.

• **좋아하는 나라**

(상위 10위, %)

순위	나라	2012년	2002년	순위	나라	2012년	2002년
1	미국	21.5	16.5	6	일본	4.5	4.3
2	호주	19.0	12.5	7	프랑스	4.2	4.6
3	스위스	8.0	8.8	8	뉴질랜드	4.0	3.7
4	캐나다	7.4	6.6	9	중국	1.8	4.3
5	영국	5.1	3.0	10	독일	1.7	2.5

(상위 5위, %)

구분		사례수(명)	미국	호주	스위스	캐나다	영국
전체		1,500	21.5	19.0	8.0	7.4	5.1
성별	남성	745	21.1	17.3	7.7	6.7	5.3
	여성	755	22.0	20.7	8.3	8.0	4.8
연령별	19~29 세	329	18.6	19.1	7.7	5.1	9.6
	30 대	307	18.5	22.9	7.2	8.3	3.8
	40 대	327	15.4	20.8	10.0	9.2	3.7
	50 대	278	25.1	18.5	9.6	6.2	4.5
	60세 이상	259	32.8	12.6	4.9	7.9	3.2

(질문) 귀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나라(외국)는 어느 나라입니까? 한 나라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인이 싫어하는 나라: '일본'(44.1%), '중국'(19.1%) 순
10 년 전보다 일본 10.7%포인트, 중국 14.5%포인트 증가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외국)로는 '일본(44.1%)'이 꼽혔다. '중국'(19.1%), '북한'(11.7%), '미국'(4.8%)이 일본의 뒤를 이어 한국인이 싫어하는 나라 목록에 올랐다.

10 년 전에 비해 일본은 10.7%포인트, 중국은 14.5%포인트 비호감도가 증가했고, 미국과 북한 비호감자는 감소했다. 연령별로 봤을 때, 북한을 싫어하는 나라로 꼽은 사람은 고연령일수록 많아 특히 한국전쟁을 직접 겪은 60 세 이상(259 명)에서는 23.5%에 달했다.

• **싫어하는 나라**

(상위 10위, %)

순위	나라	2012년	2002년	순위	나라	2012년	2002년
1	일본	44.1	33.4	6	러시아	0.6	0.4
2	중국	19.1	4.6	7	베트남	0.5	0.2
3	북한	11.7	17.3	8	아프가니스탄	0.4	0.3
4	미국	4.8	18.0	9	필리핀	0.3	0.2
5	이라크	0.7	0.7	10	이탈리아	0.3	3.4

(상위 5위, %)

구분		사례수(명)	일본	중국	북한	미국	이라크
전체		1,500	44.1	19.1	11.7	4.8	0.7
성별	남성	745	44.8	17.3	13.6	5.0	0.6
	여성	755	43.3	20.8	9.9	4.6	0.7
연령별	19~29 세	329	39.5	23.8	7.1	6.2	1.4
	30 대	307	47.0	19.3	6.3	3.9	1.2
	40 대	327	40.0	23.1	11.5	6.5	0.0
	50 대	278	45.8	17.4	12.3	4.2	0.5
	60세 이상	259	49.7	9.5	23.5	2.5	0.0

(질문) 귀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나라(외국)는 어느 나라입니까? 한 나라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51.1%..... 상위 5 개국 10 년 전과 다름 없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한국 포함)에서 태어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절반 가량의 국민이 우리나라, '한국'(51.1%)을 꼽았다. 그 다음은 '미국'(11.2%), '호주'(10.5%), '스위스'(5.6%), '캐나다'(4.0%)가 뒤를 이었다.

동일한 질문으로 진행된 2001 년 조사에서도 한국이 48.5%로 가장 많이 응답됐으며, 미국(12.0%), 호주(10.5%), 스위스(5.9%), 캐나다(5.4%) 순서로 조사돼 출생 희망 나라는 10 년 사이 변화가 없었다. 상위 10 개 나라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북미, 유럽 지역 나라들이었다. 고연령일수록 한국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고 미국 희망자는 저연령일수록 증가해 19~29 세(329 명) 중 18.7%가 응답했다.

-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상위 10위, %)

순위	나라	2012년	2001년	순위	나라	2012년	2001년
1	한국	51.1	48.5	6	영국	2.9	1.9
2	미국	11.2	12.0	7	뉴질랜드	2.1	3.2
3	호주	10.5	10.5	8	프랑스	1.5	2.3
4	스위스	5.6	5.9	9	일본	1.5	1.9
5	캐나다	4.0	5.4	10	스웨덴	1.3	0.9

(상위 5위, %)

구분		사례수(명)	한국	미국	호주	스위스	캐나다
전체		1,500	51.1	11.2	10.5	5.6	4.0
성별	남성	745	51.4	10.1	8.7	5.5	3.3
	여성	755	50.7	12.3	12.4	5.8	4.7
연령별	19~29 세	329	37.4	18.7	9.8	7.0	3.0
	30 대	307	43.9	11.0	13.0	4.5	5.5
	40 대	327	46.7	10.1	12.1	9.3	4.4
	50 대	278	61.5	8.4	8.9	4.5	2.6
	60 세 이상	259	71.3	6.6	8.2	1.8	4.4

(질문) 만약 귀하께서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한 나라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의 한국갤럽 연구 3 본부 정현정 선임연구원 02-3702-2613 hjujung@gallup.co.kr